

제 3 분 과

2

지역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활성화방안

최 재 권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회장)

지역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활성화방안

최재권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회장)

지역네트워크 활성화방안을 찾아봄에 있어 학문적 연구를 고찰하기보다는 천안지역 네트워크가 가고자 하는 길을 살펴보고 그 역할을 정의해봄으로써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1.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가 가고자 하는 길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이하 “천사넷”)는 2012년 10월 16일 발족한, 이제 막 1년이 되어 가는 신생 비영리단체이다. 천사넷은 충남세종사회적기업협의회 내의 지역 협의회인 천안사회적기업협의회의 활동에 천안NGO센터, (사)충남벤처협회, 천안YMCA가 뜻을 같이해 지역의 문제를 ‘협동과 순환’의 고리로 풀어보려고 결성하였다. 지금은 천안지역자활센터도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다.

천사넷은 선언문에서 “오늘 우리는 천안의 미래모습이 성장과 경쟁의 패러다임을 벗어나 지역재건과 공생, 협동의 사회가 되길 희망하며 이 자리에 모였다.”라고 천안의 미래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개별 사회적기업의 운영을 넘어 사회적경제간 소통과 교류를 증진하고 지역 순환경제와 공동체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발족한다.”고 설립목적을 밝히고 있다.

또 천사넷 정관 제3조에서는 “지역 내 사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협동을 통한 연대로 다 같이 잘 사는 지역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힘으로써 천사넷이 가고자 하는 길이 “다 같이 잘 사는 지역사회 건설”임을 분명히 하였다.

2. 천사넷의 역할

천안지역은 도농복합도시이면서도 교통의 중심지로서 수도권에 편입된 사회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국가적 문제인 고령화, 저출산, 양극화, 교육과 환경 등의 문제가 있고 역외 유출, 구도심의 공동화, 농촌인구의 감소같은 지역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에서 앓고 있는 특정문제도 있다.

천사넷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지자체, 시민사회, 기업 등이 연대와 협동을 통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머리를 맞댄다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주체간의 망(네트워크)이 그물처럼 연결되고 이슈에 따라 합종연횡하면서 의사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이 망이 지역의 자본이 되고, 이 자본을 통하여 사회구조가 더욱 튼튼하게 확대 재생산되는 순환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천사넷은 이 망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첨병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렇다면 이 망을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을까?

▷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아무리 빠른 도구가 있어도 방향이 다르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 같은 곳(동일한 목적)을 바라보아야 한다.

▷ 동행할 수 있어야

목적이 같다고 다 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행할 수 있어야 한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주는 교훈을 협동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협동의 실천은 ‘참여’다. 참여가 망을 살려내는 살림살이다.

▷ 말을 하게 해야

요즘 ‘소통’이 화두다. 그런데 그 소통이란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다. 억지로라도 말을 하도록 시스템화하여야 한다. 그것이 회의든, 발표든, 말을 하도록 구조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존재의 이유가 설명되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 공유할 수 있어야

자원이 공유될수록 좋다. 그것이 물자든, 정보든, 사람이든지간에 공유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 내에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원이 공유되

면 격차가 줄어들고, 그러면 소통이 활발해진다. 물론 이익도 공유될수록 좋다.

▷ 현상에 매몰되지 말아야

추석명절에 영화 ‘관상’을 보았다. 영화가 끝나갈 즈음 이런 대사가 있었다. “나는 파도만 보았다.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지 못했다.” 현상에 매몰돼 근본적 문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 실마리를 함께 풀어야

잘났다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사회를 표현하는 글들을 자주 본다. 역사는 1%의 사람들이 만들어간다는니, 20%가 80%를 먹여 살린다는니 하는 것들이다. 지역자본도 그럴까? 지역의 이슈를 어느 한 기관이나 개인이 풀어내기엔 한계가 많다. 담론으로 제기하고 함께 실마리를 찾아내야 한다.

▷ 조급하지 말아야

실마리를 풀었어도 조급하다보면 다시 엉킬 수 있다. 엉킨 실타래를 푸는데는 풀린 실마리가 엉키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

잘 키워진 한 마리의 말은 평균적으로 약 6톤을 끌 수 있다고 한다. 말 두 필이 함께 끈다면 몇 톤을 끌 수 있을까? 단순히 더하면 12톤이지만 23톤을 끌 수 있다고 한다. 지역의 자원이 망으로 연결되면 사회적자본의 크기도 달라진다. 지역 네트워크의 활성화정도가 사회적자본의 크기를 키우는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

천사뱃이 가고자 하는 길은 “다 같이 잘 사는 지역사회 건설”이다. 이 목표를 함께 바라보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